

퇴직준비프로그램개발을 위한 퇴직예정자의 특수조사*

김 연 옥**

I. 서: 연구의 배경과 의의	IV. 조사결과 및 분석
II. 개념정의와 선행연구분석	V. 결론
III. 연구방법	

I. 서: 연구의 배경과 의의

본 연구는 퇴직준비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퇴직준비프로그램(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은 이름 그대로 퇴직예정자가 취업시기에서 퇴직시기로 바람직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주요 기능이다. 이 프로그램은 퇴직으로 인해 개인에 따라 정도차이는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전문적 지원에 의해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퇴직은 고용에 의한 유급의 직위에서 물러나 이 직위와 관련된 역할 수행을 중단하게 되는 것으로 노년기의 시작을 의미함과 동시에 흔히 노인문제의 계기가 된다. 퇴직에 의해 예견되는 문제는 개인에 따라 그 내용과 정도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이겠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수입원의 단절을 의미하는 퇴직은 퇴직자의 경제상황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다. 연구에 따르면 퇴직후의 수입은 흔히 퇴직전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직업과 관련된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활동과 대인관계 등이 퇴직과 더불어 그 범위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퇴직자들에게 사회적 소외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심리적 정체감의 일부를 이루는 사회

* 이 논문은 산학협동재단의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퇴직자들의 퇴직후 소득은 평균적으로 퇴직전수입의 60%정도이다.

회적 소외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심리적 정체감의 일부를 이루는 사회적 정체감(social identity)은 개인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퇴직으로 인한 역할상실은 퇴직자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기 쉽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이 개인의 가치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퇴직이 야기시키는 심리적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갑작스런 활동의 중단은 신체적 리듬에 영향을 미쳐 신체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은 퇴직의 부정적 결과는 퇴직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신체적 건강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크다고 보겠다.

이러한 퇴직에 의해 직면하게 되는 개인적 문제 외에, 퇴직후 생활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회적 요인이 있는 바 보건위생의 개선과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후의 삶이 과거보다 길어졌고,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65세 이상의 노령자층에 비노동인구수가 증가하며²⁾, 조기정년제도로 인해 이러한 비노동인구수는 더욱 불어나는 현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³⁾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시작한 퇴직후 생활의 질은 퇴직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정도에 달려있다.⁴⁾ 즉, 퇴직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과 그에 대한 준비정도는 퇴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퇴직후의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켜 바람직한 노년기를 영위하도록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퇴직후 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준비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준비를 한 퇴직자의 퇴직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⁵⁾ 이러

2) 미국의 경우 20세기초에는 65세 이상노인의 80%정도가 노동력상태에 있었으나 80년대초에는 역현상으로 바뀌었다. 여성노인의 경우 큰 변함없이 8-10%에 머무르고 있다: Peterson, D.A., Facilitating Education for Older Learners, Jossey-Bass Publishers, 1983.

3) Ibid.

4) Morrow, P.C., "Retirement Planning Programs: Assessing their Attendance and Efficacy", Aging and Work, 4, 1981, pp. 244-252.

5) Heidbreder, E.M., "Factors in Retirement Adjustment: White Collar/Blue Collar Experience", Industrial Gerontology, 1972, pp. 69-79., Peterson, D.A., 1983, op.cit., p.211.에서 재인용

한 의미에서 퇴직예정자에게 퇴직에 대비한 준비를 하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퇴직준비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퇴직준비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지만 미국의 경우 일찍부터 산업계에서 뿐만 아니라 노년학계, 교육학계, 노동관계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여왔다. 특히 대학교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제 2 차세계대전후에 시카고대학과 미시간대학을 위시한 대학들이 퇴직자에게 정보제공과 상담을 내용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확산되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 기업, 정부조직, 지역사회, 종교단체, 대학교 등의 지원과 후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⁶⁾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퇴직준비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단지 한국전력에서 퇴직을 6개월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1985년 8월에 2주동안 실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부이다. 고도산업사회의 구조속에서 일찍이 1960년대부터 퇴직제도를 실시해오고 있고, 그것도 비교적 조기의무정년제도이며, 또한 이미 노령화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퇴직후의 노년층 생활을 지나치게 간과해온 감이 있다. 이는 사회복지학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퇴직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제도연구에 치중되어있고, 퇴직경험과 관련된 퇴직자개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며, 퇴직을 위기상황으로 경험하는 개인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대책은 거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로부터 본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퇴직예정자의 퇴직준비정도와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평가하여 퇴직준비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하고자 하는 데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세가지 주제로 대별된다.

첫째는 퇴직에 대한 개인적 대처양상과 관련된 주제로서, 구체적으로는 퇴직후 생활계획정도, 퇴직에 대한 태도, 퇴직후 생활예견 등이다. 두번째 주제는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대한 퇴직예정자들의 욕구평가와 이와 관련된 요인분석, 마지막으로 프로그램내용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포함된다.

6) Charles, D.C., "Effect of Participation in a Preretirement Program", The Gerontologist, 11, 1971, p.24.

II. 개념정의와 선행연구분석

1. 퇴직준비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퇴직준비프로그램으로 지칭되는 퇴직관련프로그램은 퇴직계획프로그램 (retirement planning programs), 퇴직전프로그램 (preretirement programs), 퇴직전상담프로그램 (preretirement counseling programs), 퇴직전교육 (preretirement education) 등으로도 불리운다. 여러 명칭이 시사하는 바는 많은 영역에서 퇴직문제에 관여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매우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다양성은 프로그램후원자 및 주체자, 관련집단의 이해(interests), 참여자의 기대와 동기, 퇴직에 대한 일반의 인식 등에 기인된다.

Peterson은 미국에서 시행되는 퇴직준비프로그램 중 기업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가장 많다고 보고하였다.⁷⁾ 기업이 퇴직준비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세 측면으로 정리된다.⁸⁾ 첫째는 고용인의 퇴직 후 생활적응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퇴직자 개인을 위한 복지적 목적이다. 둘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고용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완수한다는 긍정적인 기업이미지 홍보에 목적이 있다. 셋째는 기업경영의 이해(interests)에서 출발한 것으로, 프로그램실시를 통해 노사관계의 개선, 강제퇴직제도에 대한 저항감의 감소, 고용인의 사기진작과 그로 인한 생산성향상, 퇴직시기의 조절로 새로운 노동력과 숙련된 노동력의 유출입의 통제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인사부에서 실시하

7) Peterson, D.A., 1983, op.cit.

8) Kasschau, R.L., "Reevaluating the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 Industrial Gerontology, 1, 1974, pp. 42-59.

Siegel, S.R. & Rives, J.M., "Characteristics of existing and planned Preretirement Programs", Aging and Work, 1, 1978, pp. 93-99.

Pryon, H.C., "Preparing employees for retirement", Personal Journal, 48, 1969, pp. 722-729.

는 개인에 대한 퇴직상담의 형태가 주를 이루다가 하나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제도화되어가고있어 1980년대 초에는 퇴직예정자의 10% 정도가 퇴직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⁹⁾

프로그램참여자의 이해와 동기에 대해서 Monk와 Donovan은 경제적 지위와 소득의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경제적 동기, 새로운 인간관계의 지지 체계에 관심을 둔 사회적 동기, 지속적인 교육의 목적을 가진 실존적 동기, 개개인의 특성에 기초한 복합적 동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은 부업등을 통한 경제적 지위와 소득보장의 프로그램, 새로운 인간관계와 지지체계제공의 프로그램, 평생교육목적의 프로그램, 개인적 욕구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화된다.¹⁰⁾

이외에 퇴직준비프로그램의 성격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퇴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있다. 미국의 경우, 퇴직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최근에 와서 변화하는 추세인데, 50, 60년대에는 노동지향적 가치에 근거한 퇴직위기의 시각이 지배적이였다. 즉 직업상실은 역할상실을 의미하는 전환위기(transition crisis)로서, 대부분이 퇴직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전제에 근거하여 이 시기의 퇴직준비프로그램은 직업상실로 야기되는 문제, 특히 퇴직에 대한 거부적이며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위주의 프로그램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건강의 향상과 특히 퇴직후 경제생활의 향상으로 인해 퇴직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가 변화되면서 퇴직을 하나의 작은 변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퇴직준비 프로그램도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보다는 퇴직후의 다양한 생활에 대한 고려와 선택, 계획, 노년기의 지속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¹¹⁾

전술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 퇴직준비프로그램은 심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개인상담으로부터 노년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교육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9) Peterson, D.A., 1983, op.cit.

10) Monk, A. & Donovan, R., "Pre-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 A Review of the Recent Literature", Aged Care and Services Review, 1978-1979, 1, Peterson, D.C., 1983, op.cit.에서 재인용

11) Peterson, D.A., 1983, op.cit.
Kasschau, P.L., 1974, op.cit.

램이 실시되어왔다. 최근에는 퇴직예정자들의 상황과 욕구에 총체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인식과 함께 종합퇴직준비프로그램(comprehensive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복합적인데, 첫째는 노화와 퇴직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야기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의 증진으로 건강, 경제 상황, 가족관계, 역할변화, 사회적 변화, 주택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도록 돕는다. 둘째, 상황판단력, 대안고려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강화시켜 미래생활에 대한 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수입, 건강, 주택, 여가활동, 사회적 관계 등 퇴직후 생활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넷째, 퇴직에 대한 불안과 근심을 감소시키고, 퇴직후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배양시킨다. 마지막으로 퇴직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으로 퇴직후 사기, 생활만족도, 자아실현을 가능케 한다.¹²⁾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종합퇴직준비프로그램의 조건으로서, 주제는 사회보장제도, 개인적 경제계획과 부업, 건강, 주택, 여가활동, 법적 문제, 심리적 문제를 포함하는 개인적 문제 등이 모두 다루어지며, 늦어도 퇴직 5년 이전부터 제공되며, 고용업체가 실시주체자이다. 또한 근무시간중에 총 10시간 이상 실시되며, 프로그램은 상담이나 집단활동, 혹은 양자의 복합형태로 실시된다.¹³⁾ 이는 고용업체가 실시주체인 것을 전제로 한 조건이지만 목적과 내용면에서 실시주체기관과 상관없이 바람직한 퇴직준비프로그램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퇴직후생활적응

퇴직후 생활적응과 만족도예측을 가능케 하는 요인중에서 퇴직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퇴직계획, 퇴직에 대한 태도, 퇴직후생활예견 등이 있다. 결국 퇴직준비프로그램이란 이들 요인에 대한 개입으로 퇴직에 대한 이해증진, 퇴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배양, 퇴직준비를 권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퇴직계획이란 퇴직후 생활과 관련하여 경제적 수입문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에 대해 퇴직전부터 구체적이며 현실적

12) Peterson, D.A., 1983, op.cit.

Siegel, S.R. & Rives, J.M., 1978, op.cit.

13) Monk, A. & Donovan, R., 1978-1979, op.cit., Peterson, D.A., 1983, op.cit.에서 재인용

인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에 대한 태도란 유급의 일에서 물러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퇴직자의 주관적 반응으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퇴직후 생활에 대한 예견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퇴직후의 생활이 어떠할 것이라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예측을 의미한다. 이들 변수들이 퇴직후 생활적응 및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¹⁴ 반면에, 이 세 변수간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가설을 설정하고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

최성재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퇴직계획정도가 퇴직에 대한 태도의 예측인자로, 그리고 퇴직에 대한 태도와 계획정도가 동시에 퇴직후생활에 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로 밝혀졌다.¹⁵ 즉 퇴직에 대한 계획을 할수록 퇴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또한 퇴직생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수록 퇴직후 생활에 대한 예견이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Glamser의 연구에서는 반대로 퇴직후 생활예견과 퇴직계획이 퇴직태도의 예측인자로 설명되었다.¹⁶ Kasschau는 퇴직에 대한 계획은 퇴직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주며, 적응도는 퇴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정확한 예견과도 크게 관련된다고 하여 이들 세요인을 퇴직생활적응관련변인으로 보고 이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¹⁷ 그러나 Thompson은 세 요인

14) Glamser, F.D., "The Impact of Preretirement Programs on the Retirement Experience", Journal of Gerontology, 1981, 36, pp.244-250.

Kasschau, P.L., 1974, op.cit.

Streib, G.F. & Schneider, C.J., Retirement in American Society: Impact and process, Cornell University Press, 1971

Thompson, W.E., "Preretirement Anticipation and Adjustment in Retire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1958, 14, pp.35-45.

15) 최성재, "퇴직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후 생활전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창간호,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89, pp.47-66.

16) Glamser, F.D., 1981, op.cit.

17) Kasschau, P.L., 1974, op.cit.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기에는 축적된 연구가 부족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다.¹⁸⁾ 오히려 세 요인은 상호순환적 작용에서 퇴직적응이라는 현상을 낳는다는 것이 설득력있는 설명이라고 본다. 본연구에서는 이들 각 변수의 측정값으로 조사대상자의 퇴직후 생활적응과 만족도를 추론하며, 변수간의 인과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퇴직준비프로그램육구와 관련요인

본 연구에서 퇴직준비프로그램육구란 프로그램의 필요성인식과 참여의사를 의미한다. 이 주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진 연구는 전무하고 서구의 경우에도 그다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많지않은 기존의 육구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퇴직준비프로그램육구 관련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볼 변수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육구조사결과는 아니지만 프로그램참여자에 대한 연구에서 육구를 설명할수 있는 변인으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변수도 포함시켰다.

(1) 교육수준, 직종, 소득수준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변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엘리트집단이 퇴직계획에 대한 현실적이며 정확한 인식과 더불어 필요한 충분한 자원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퇴직상황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¹⁹⁾ 이들 집단은 퇴직후의 여가활동, 지속적 자기성장 등 가치를 두는 활동에 전념할수 있다는 이유로 퇴직을 반기는 경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퇴직준비는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Peterson은 고소득, 고학력일수록 개인적 계획을 선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⁰⁾ 또한 Fillenbaum의 연구결과는 중, 상위직종종사자보다 하위직종종사자가 퇴직준비프로그램의 참여의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²¹⁾ Monk 또

18) Thompson, W.E., 1958, op.cit.

19) Glanser, F.D., 1981, op.cit.

Kimmel, D.C., Price, K.F. & Walker, J.W., "Retirement Choice and Retirement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978, 33, pp.575-585.

McPherson, B. & Guppy, N., "Pre-retirement Life-style and the Degree of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4, 1979, pp.254-263.

20) Peterson, D.A., 1983, op.cit.

한 Fillenbaum의 연구와 동일한 결론을 얻었는데, 그의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으로 행정관리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자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이 컸는데, 이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퇴직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않기 때문인 것같다고 그는 해석하였다.」 종합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식적인 퇴직준비프로그램보다는 사적인 차원의 준비를 선호할것이다. (가설 1, 2, 3)

(2) 건강

건강은 퇴직생활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건강은 퇴직후 생활의 다양성과 범주를 결정함으로써 퇴직후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건강할수록 삶에 대한 자세가 유연하고 다양한 기대를 하며 퇴직후 생활을 즐기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퇴직에 대해 사전 인식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한 자가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Campione의 실증적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가설 4)

(3) 여가활동

퇴직이 더 이상의 전환위기가 되지않는 것은 노동지향적인 가치의 퇴색과 함께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노동이외의 여러곳에서 충족시키기 때문이며, 그중에서도 여가활동은 자긍심, 자아정체감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일을 대신할 여가활동이 성공적인 퇴직생활의 주요인자이며 퇴직에 대한 태도, 퇴직계획, 준비의 정도나 형태에 긍정적

-
- 21) Fillenbaum, G.G., "Retirement Planning Programs: at What Age and for Whom?", Gerontologist, 11, 1971, pp.33-36.
 - 22) Monk, A., "Factors in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by Middle Aged Adults", Gerontologist, 11, 1971, pp.348-351.
 - 23) Kassahau, P.L., 1974, op.cit.
Streib, G.F. & Schneider, C.J., 1971, op.cit.
 - 24) McPherson, B. & Guppy, N., 1979, op.cit.
 - 25) Campione, W.A., "Predicting Participation in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 Journal of Gerontology, 43, 4, 1988, pp.s91-s95.
 - 26) Atchley, R.C., "Retirement and Leisure Participation: Continuity or Crisis?", Gerontologist, 11, 1971, pp.13-17.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여가활동지향도가 높으면 따라서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클 것이라는 가설을 끌어낼수 있다. (가설 5)

(4) 퇴직후 경제수준

퇴직전에 고소득자인 경우 퇴직후의 경제수준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 퇴직후 소득이 보장되어 경제상황이 안정될수록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것으로 학자들은 예측한다. 27) (가설 6)

(5) 퇴직시까지 잔여기간

퇴직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퇴직에 대한 고려가 증가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심리적인 변화와 더불어 퇴직과 관련된 여러 정보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퇴직이 가까워올수록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지된 바 있다. 28) (가설 7)

(6) 의무퇴직의 압박감

Campione의 연구에 의하면 의무정년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정년을 넘어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퇴직준비프로그램참여의사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29) 이와같은 결과는 정년이 본인이 원하는 퇴직시기와 일치할수록 퇴직에 대해 긍정적이며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퇴직준비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Campione는 해석하였다. (가설 8)

(7) 퇴직에 대한 태도, 퇴직계획정도

퇴직준비프로그램의 참여자와 비참여자에 대한 Morrow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퇴직에 대한 태도가 비참여자보다 좀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 또한 퇴직계획에서도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높은 준비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Morrow는 이러한 차이가 퇴직준비프로그램참여의 결과로서 이해되기도 하지만, 단기간의 프로그램참여보다는 기본적으로 퇴직에 대한 도움을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집단, 즉 퇴직에 대해 긍정적이고 계획적인 집단에서의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

27) Campione, W.A., 1988, op.cit.

28) Fillenbaum, G.G., 1971, op.cit.

29) Campione, W.A., 1988, op.cit.

30) Morrow, P.C., 1981, op.cit.

다. Campione는 취업상태에 있는 기간에 퇴직준비를 해온 사람들이 퇴직준비프로그램참여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³¹⁾ 따라서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퇴직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수록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가설 9, 10)

이상의 선행연구에 기초해 선정된 변수와 퇴직준비프로그램욕구간의 관련을 예측하는 10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설계 및 표집

본 연구는 서베이 조사설계(survey research)에 의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정년퇴직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전국의 공, 사조직체에 근무하며 3년 이내에 퇴직할 예정에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실제적 표집과정에서는 국민연금가입자 중에서 퇴직을 3년 이내에 둔 퇴직예정자 명단을 작성한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 random sampling방법에 의해 1,000 명을 표집하였다. 자료는 설문지법으로 실시되어 이들 1,000 명에게 설문지를 우송한 결과, 우편을 이용한 조사연구의 평균 회수율을 만족시켜 320여개가 수집되었다.³²⁾ 이중 응답내용이 충실치 않은 것을 제외시켜 최종 분석대상수는 249개였다. 조사결과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교육수준은 무학에서 대학원이상까지 10단계로 나누어 측정하여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고학력일수록 높은 점수로 부호화하였다. 직종은 통계청의 직종분류방법에 근거하여 단순노무직에서 전문기술직까지 9가지 직종으로 분류하여 1점에서 9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현재의 경제수준은 응답자의 월소득을 파악하는 객관적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30만원 미만에서 시작하여 10만원 간격으로 200만원까지 18등급으

31) Campione, W.A., 1988, op.cit.

32) 우편을 이용한 질문지조사법은 20-40%의 회수율을 보인다: 김경동, 이은숙 공저, 사회조사연구방법, 박영사, 1986, p.157.

로 나누었다. 응답결과는 1점에서 18점 사이로 부호화하여 점수가 클수록 월소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퇴직후 경제수준전망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서 '매우 조들릴것이다'에서 '매우 괜찮을 것이다'까지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퇴직시까지의 잔여기간은 6개월에서 3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6등급으로 나누어 잔여기간이 길수록 큰 점수가 부여되었다. 의무정년압박감은 본인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연령과 의무퇴직연령과의 차이로서 측정하여 이 차이가 클수록 의무퇴직에 대한 압박이 큰 것으로 간주하였다.

퇴직에 대한 태도, 퇴직계획, 퇴직후생활예견에 대한 측정은 최성재 교수가 퇴직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퇴직에 대한 태도의 척도는 퇴직에 대한 태도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별로 긍정적 경향에 1점, 부정적 경향에 0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퇴직에 대한 계획정도는 계획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측정하여, '확실한 계획이 서 있다'에서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까지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또한 점수가 높으면 계획정도가 높은것으로 판단하였다. 퇴직후 생활예견은 경제부분, 건강,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측면, 여가활동 등으로 구성되는 생활영역에 대한 예견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가를 묻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별로 긍정적 방향의 예측은 1점, 부정적인 예측은 0점을 부가하여 1점에 근접한 값일수록 퇴직후 생활에 대한 예견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체 문항은 각 문항의 합산값으로 16점에서 0점 사이에 분포하며 16점에 가까운 값일수록 퇴직후 생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점수가 클수록 퇴직후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분석결과 Alpha는 0.88이다. 타당도는 연구자에 의한 face validity로 검증하였다.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인식과 참여의사의 측정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프로그램필요성인식은 '매우 필요하다'에서 '전혀 필요없다'까지 5점 서열척도를, 프로그램참여의사는 '꼭 참석하겠다'에서 '전혀 참석할 생각이 없다'까지 4점 서열척도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욕구도는 필요성인식과 참여의사 응답을 합산한 값으로 측

정하여 욕구가 크면 점수가 크도록 부호화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대상자 240명중에서 남자가 220명으로 전체응답자의 88.4%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29명으로 11.6%를 점하였다. 최성재 교수의 연구와 비교하면 본 조사에서의 여자응답자 비율이 거의 두 배에 달하나 그래도 남자수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비율을 보인다고 할수 있다. 이는 여성근로자가 퇴직시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성근로자의 취업직종의 특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³³⁾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58.8세이며 51세에서 67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빈도별로는 58세(21.3%), 57세(19.3%), 59세(18.5%), 62세(14.9%), 60세(10.4%)의 순이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전체의 35.7% (전문대졸 7.2%, 대졸 22.9%, 대학원 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졸 29.3%, 중졸 15.6%, 국졸 14.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학이 3.6%이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고졸이 가장 많았던 최성재 교수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본 표본의 학력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직종은 부여되는 사회적 위신, 요구되는 교육수준, 경제적 보상 등을 고려하여 세 집단으로 묶어본 결과,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으로 41.4%, 그 다음이 농업 등 일차산업, 생산기술직, 운수기능직, 단순노무직종사자로 36.5%, 마지막으로 일반사무원, 판매직, 서비스직종사자로 22.1%이다.³⁴⁾ 상위직종종사자의 높은 비율은

33) 1990년도 우리나라 종사사업체 규모별 여성분포를 보면 전체여성취업자의 64.6%가 종업원수 1-4인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 1991

1991년도 우리나라 55세 이상 취업자의 성별구성비를 보면 전체취업자의 57.3%가 남자, 42.7%가 여성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2, 4.

34) 1991년도 연령별 직업분포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농업 등 일차산업, 생산기술직, 운수기능직,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가

본 표본의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일관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평균 월수입으로 응답자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였는 바, 가장 많은 응답자의 월수입은 40-50만원 사이로 전체 응답자의 12.9%, 다음이 80-90만원 사이로 12.0%가 해당되었다. 전체적으로 50만원미만이 32.5%,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이 36.4%, 100만원 이상이 33.8%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소득분포와 비교하면 다소 높은 경제수준을 보인다고 간주된다.³⁵⁾ 이는 위에서 살펴본 교육수준과 직종에서 상위권해당자가 높았던 것과 일치되는 결과로 보인다.

응답자가 일하는 직장의 퇴직연령은 55세로부터 68세 사이로 분포되어 있으며, 61세정년이 가장 많아 전체응답자의 23.3%가 해당되었고, 다음이 60세로 21.7%, 58세가 20.5%의 순이다. 퇴직연령이 65세 이상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11.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응답자가 원하는 퇴직연령과 비교하면 또 다른 사실이 발견된다.

의무퇴직연령과는 달리 응답자가 원하는 퇴직연령은 가장 많은 응답자가, 즉 47.4%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65세 라고 대답하였고, 70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수는 전체의 19.3%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의 71.9%가 65세 이상의 나이 때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나 응답자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일찍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2. 퇴직에 대한 태도, 퇴직계획, 퇴직후생활예견

퇴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퇴직생활예견은 퇴직후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며, 퇴직에 대한 계획은 퇴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한다.³⁶⁾ 따라서 응답자의 퇴직후생활적응과 만족도는 퇴직에 대한 태도, 퇴직후 생

장 많았고, 다음이 일반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종사자였으며,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종사자가 가장 적은 숫자였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2.4.

35) 1988년 우리나라 월소득계층별 가구 백분율을 보면 월소득 50만원 미만이 전체가구의 34.7%,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이 46.6%, 100만원이상이 18.7%를 차지하였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1

36) Morrow, P. C., 1981, op. cit.

Thompson, W. E., 1958, op. cit.

활계획정도, 퇴직후생활에건 등의 분석을 통하여 추론이 가능하다. 조사 응답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측정결과는 <표 1>과 같다.

<표1> 퇴직에 대한 태도 점수

문 항	문항별평균점수
퇴직이 기다려진다	0.07
가능하면 퇴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0.31
퇴직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0.27
퇴직할 것을 생각하면 뭔가 불안해진다	0.28
퇴직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0.33
퇴직이 닥쳐오는 것이 두려워진다	0.43
전체문항합산평균	1.64

각 문항은 응답이 퇴직에 대해 긍정적 경향이면 1점, 부정적 경향이면 0점을 부여하여 1점에 가까울수록 퇴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전체문항합산평균값은 6점과 0점사이의 값을 가지며, 6점에 근접하는 값일수록 긍정적인 퇴직태도를 가리킨다. 본 연구의 응답자의 경우 각 문항값이 전부 0.5이하이며, 전체문항값은 1.64의 낮은 값으로서 퇴직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퇴직후 생활계획의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퇴직후 생활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6%에 불과하고, 계획이 막연하거나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응답자가 74.3%에 달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장래에 대한 계획 없이 퇴직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퇴직후 생활계획정도결과

구 분	빈 도	백분율 (%)
확실한 계획이 서 있다	14	5.6
대체적인 계획은 서 있다	50	20.1
막연하나마 어떤것을 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112	45.0
계획은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73	29.3
계	249	100.0

퇴직후 생활에 대한 예견은 전술한대로 경제부분, 건강측면, 대인관계, 여가활동 등의 생활영역에 대한 전망을 묻는 1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퇴직후 생활에 대한 예견

문항	문항별평균점수
의식주의 생활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0.65
의식주의 생활은 어려움이 없겠지만, 생활을 즐길만한 경제적 여유는 없을 것이다	0.28
의식주의 생활도, 생활을 즐기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0.34
건강이 크게 나빠질 것이다	0.58
빨리 늙게 될 것이다	0.40
정신적으로 나약해질 것이다	0.32
가치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0.51
쓸쓸해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0.33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것이다	0.42
가정에서 할일이 많아질 것이다	0.42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독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0.65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와 질 것이다	0.46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할일이 많아질 것이다	0.32
생활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0.47
할일이 없어 시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0.40
평소에 못했던 일을 하면서 흥미있고 즐거운 생활이 될 것이다	0.34
전체문항합산평균	6.89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퇴직후 생활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경향으로 드러났다. 생활예견의 총점수는 16점과 0점사이에 분포하게 되는데, 중간점수인 8점인 경우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닌데, 본 조사결과는 6.89점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들의 퇴직후 직면하게 될 생활 전반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은 대체로 퇴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퇴직후 생활에 대한 계획은 전체적으로 되어있지 못한 상황이며, 퇴직후 생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들의 퇴직후 생활적응이 그다지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며, 따라서 생활만족도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응답자들이 퇴직후 재문제에 취약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관련요인

앞서 진술했듯이 프로그램욕구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인식과 참여의사의 파악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 <표 5> 와 같다.

<표 4> 프로그램의 필요성인식

구 분	빈도 (%)
반드시 필요하다	68 (27.3)
필요하다	99 (39.8)
그저 그렇다	46 (18.5)
별로 필요없다	32 (12.9)
전혀 필요없다	4 (1.6)
계	249 (100.0)

<표 5> 프로그램 참여의사

구 분	빈도 (%)
꼭 참석하겠다	57 (22.9)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143 (57.4)
별로 참석할 생각없다	46 (18.5)
전혀 참석할 생각없다	3 (1.2)
계	249 (100.0)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응답자의 67.1%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18.5%는 확실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고 14.5%는 필요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의사는 80.3%가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대체적으로 응답자의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알수있다.

이와같은 퇴직준비프로그램욕구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관련성의 정도를 보기위하여 Person상관관계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에 나타나있다.

선행연구분석을 통해 퇴직준비프로그램욕구 결정요인으로 도출된 10개의 요인가운데 6개의 요인이 퇴직준비프로그램욕구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교육수준, 직종, 건강상태, 퇴직후경제수준전망, 의무정년 압박감 요인등의 상관관계 크기는 약한 반면에 여가활동요인의 관계크기는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인다.

〈표 6〉 퇴직준비프로그램욕구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의 상관관계계수

퇴직준비프로그램욕구관련요인	Person's r
교육수준	.28*
직종	-.17**
경제수준	.05
건강상태	.14**
여가활동	.38*
퇴직후경제수준전망	.16**
퇴직시까지의 잔여기간	.01
의무정년압박감	-.23*
퇴직에 대한 태도	-.08
퇴직에 대한 계획정도	.07

* $P < .001$ ** $P < .05$

프로그램욕구와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가운데 직종과의 관계만이 입증되어 사회적 위신이 높은 직종에 종사할수록 프로그램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프로그램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가설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경제수준은 프로그램욕구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에 퇴직후 경제전망은 가설과는 반대로 경제전망수준이 높을수록 프로그램욕구가 큰 것으로 드러나 경제관련변수들이 상호간에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건강상태와 프로그램욕구와는 비록 관계의 크기는 작았지만 정적인 관련성이 검증되어 건강할수록 프로그램욕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활동과의 관계성은 비교적 크게 나타나 가설을 입증하여, 여가활동의 수가 많을수록 퇴직의 준비에 적극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본 연구에 의해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퇴직시까지의 남은 기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에 정년과 본인이 원하는 퇴직연령과의 차이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차이가 클수록 프로그램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ampione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퇴직후 생활적응과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즉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후 생활에 대한 계획은 프로그램욕구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들 각 요인들의 측정치에 variation이 적고 한쪽 방향으로 값이 집중되어 있어 변수로서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퇴직준비프로그램형태

(1) 내용퇴직준비프로그램의 주제중 응답자가 가장 관심있어 하는 부분은 경제문제로서 37.7%가 재취업, 부업 등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얻기를 원하였고, 다음으로 43.4%가 연금, 퇴직금의 관리와 투자문제를 프로그램의 중요주제로 지적하였다. 12.7%가 건강문제를, 7.0%가 여가활용, 2.9%가 주택문제, 2.5%가 소외, 고독 등의 심리적 문제, 2.0%가 대인관계문제, 0.8%가 사회봉사활동문제를 지적하였고, 상속, 유언등의 법률관련문제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과에서 보듯이 퇴직후 생활 가운데 응답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압도적으로 경제문제로서 심리적 문제나 여가활용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2) 프로그램주체와 장소

응답자의 24.5%가 자신이 속한 사업체를, 거의 비슷한 숫자로 24.1%가 사회복지기관, 13.7%가 사회교육단체, 11.6%가 인력관리전문기관, 10.8%가 대학교, 7.6%가 경제활동관련단체, 4.8%가 교회 등 종교단체를 프로그램실시에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지적하였다. 결과를 보면 어느 기관도 프로그램실시의 책임기관으로 두드러지게 부각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73%정도가 자신의고용업체를 프로그램실시책임자로 인식하지 않아 사업체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1974년 Swaboda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83%가 고용주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고 단지 13%만이 사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에 비하면 본 조사결과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Swaboda의 연구에서 18%가 대학교를 지적한 것은 본 연구결과 보다 높은 수치인데 이는 미국에서는 대학교가 퇴직준비프로그램개발과 실시를 주도한 전통 때문으로 이해된다.」

37) Swaboda, D.W., "A Survey of the Perceptions of Pre-retired Older Workers in Selected Businesses Toward Various Aspects of Retirement with Implications for Pre-retirement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실시장소는 프로그램주체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위의 결과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26.9%가 직장내 공간, 27.3%가 사회복지관, 17.7%가 인력관리전문기관, 13.3%가 교육기관, 6.0%가 직장연수원, 4.4%가 교회 등 종교시설 등을 프로그램실시장소로 선호하였다.

(3) 프로그램시작시기와 실시기간

퇴직 1년전이 프로그램참여시기로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전체 응답자의 41.4%), 다음이 6개월전(31.7%), 3년전(15.3%), 5년전(4.4%)순으로 드러났다. 실시기간으로는 2주정도가 가장 적당한 기간으로 지적되었고(49.4%), 다음이 한달(26.5%), 6개월 정도(14.5%), 1년 이상(6.4%)의 순이다.

(4) 프로그램실시때의 횟수 및 소요시간

프로그램실시때로는 응답자의 반이상이 주말을 끝냈고(51.4%), 다음이 주중의 퇴근후에(23.7%), 근무시간중(20.1%)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의 75.1%정도가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적당한 때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많은 수의 응답자가(73%) 고용업체를 프로그램실시주체자로 인식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해석될수 있다. 프로그램실시횟수로는 1주에 한두번정도의 실시를 가장 선호하였고(57.8%), 다음이 한달에 한번(34.9%)을 끝냈고, 매일 실시한다(4.4%)는 미미한 숫자로 나타났다. 한번의 프로그램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으로는 응답자의 많은 수가 2시간이하를 선호하였고(71.9%), 다음이 3-4시간정도이고(22.9%), 무시할만한 숫자가 5시간이상 소요시간을 선택하였다.

(5) 프로그램운영방식

프로그램전달방법으로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강의형식으로 밝혀졌고(49.8%), 두번째로 선호하는 방식은 집단토론형식이었으며(34.1%), 일대일 대면의 상담형식은 적은 수만이 원하는 것으로(14.5%) 드러났다. 즉 응답자들이 개인적 접근보다는 집단적 접근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겠다.

V. 결론

서구사회에서 진행되어온 연구들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퇴직예정자의 퇴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태도,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내용에 대해 연구한 결과 퇴직과 관련한 사회문제에 대해 이론적 측면과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다.

1. 이론적 측면

(1) 서구사회에서 퇴직준비프로그램욕구와의 관련성이 검증된 변수들 가운데 여가활동, 직종, 건강상태, 의무정년압박감 등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퇴직예정자들의 프로그램욕구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그러나 여가활동을 제외하곤 이들 변수들의 상관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교육과 퇴직후 경제수준전망 등의 변수는 그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그 관련성의 방향이 서구사회와는 반대로 드러났다. 기존 연구에서 상관성이 밝혀진 요인들의 상관력이 그다지 크지않게 나타나 그밖의 변수들, 즉 응답자의 나이, 성별, 결혼상태 등을 포함시켜 상관관계분석을 시도해보았으나 유의미한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밝혀진 프로그램욕구와 변수간의 관계는 변수간의 intercorrelation이 통제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변수간의 spurious관계를 규명하여 각 변수들의 직접적인 영향과 그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가 추후의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것이다.

(2) 고무적인 것은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변수가 프로그램욕구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지향도가 긍정적인 퇴직태도, 적극적인 퇴직준비, 그리고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지대한 관심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된 서구의 연구결과와 완전 일치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차원에서 이 주제가 비중있게 취급되어야할 것임을 시사한다. 여가활동은 퇴직으로 인한 일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역할지속을 가능하게 하여 퇴직후 생활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서구사회에서 퇴직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됨에는 퇴직후의 경제적 안정 외에 퇴직연령이 우리나라에 비해 늦고, 퇴직시기

를 개인의 계획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기정년제는 개인으로 하여금 퇴직을 부정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요인중의 하나라는 사실이 연구결과에 의해 확인되었다. 의무정년과 본인이 원하는 퇴직시기의 차이가 클수록 퇴직준비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거부적인 것으로 조사결과는 보여준다. 응답자가 일하고 있는 곳의 의무정년연령의 평균값이 60세임에 비해 개인이 원하는 정년나이는 67세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현행 정년제도하의 퇴직시기가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4) 퇴직에 대한 태도, 그에 대한 계획, 예견되는 퇴직후 생활 등이 모두 부정적으로 드러남으로써, 퇴직이 더 이상의 달갑지 않은 경험이 아니고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정적 삶의 전환기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면서 학계 및 기업체의 연구와 관심을 환기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측면

(1) 흔히 퇴직과 관련된 문제들을 거론할 때 경제적, 사회심리적, 건강, 등의 제문제들을 같은 비중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퇴직예정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경제관련부분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심리적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서구사회와는 대비되는 것으로서 퇴직준비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보편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기초하기보다는 각 프로그램수혜자들의 고유한 욕구에 기초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퇴직준비프로그램을 고용업체책임의 프로그램이기보다는 하나의 복지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퇴직준비프로그램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구사회에서 퇴직준비프로그램이 기업내의 제도화된 프로그램으로 정착되는 과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고용업체에 대한 고용인의 퇴직준비프로그램실시요구였다.³⁸⁾ 이러한 서구의 경험은 우리나라에 퇴직준비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근로자의 인식의 중요성을 함축한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사회복지관

38) Siegel, S.R. & Rives, J.M., 1978, op. cit.

계자들의 책임의식을 지적하여 프로그램개발과 보급에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환기시켰다고도 본다.

(3) 프로그램실시주체로서의 대학교의 역할에 기대가 크지않은 것은 서구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미국에서 퇴직준비프로그램개발과 보급에 대학교가 주도한 전통을 생각하면 이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대학들, 특히 사회복지학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프로그램 실시횟수, 실시기간, 한회의 소요시간, 실시때 등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바람직하다고 제시되는 종합퇴직준비 프로그램은 소요시간으로 1-2시간, 기간으로는 6-12주간으로 전체 6-12시간의 내용으로 근무시간외 실시인데, 이를 참고로하여 직장, 프로그램 수혜자, 실시자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6) 프로그램운영형태로 개인적 접근 혹은 집단적 접근의 선택여지는 사업체의 크기,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 참여자집단의 크기 등에 따라 융통성있게 선택 혹은 다양한 방법이 조합되어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관련정보제공이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이라면 집단적인 강연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 본 연구의 퇴직개념과 조사대상자규정에 맞지않는 표본의 가능성이다. 본문에서 거론하였듯이 본 연구는 퇴직을 유급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조사대상자는 공,사조직체에 근무하는 자로 규정하여 국민연금가입자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이 연금가입자중에는 일의 지속과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예를 들면 농업종사자 혹은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어있어 이들이 표본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표본의 대표성도 거론될 수 있다. 국민연금가입대상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집을 함으로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가입자와 어느 연금에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퇴직예정자들이 표집에서 제외되었다.